



주간

## 대학교육

599

2010년 7월 5일

The KCUE Weekly

발행인 : 이기수 / 편집인 : 성태제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대학홍보 안내 및 문의 전화 : 02 · 6393 · 5285 팩스 : 02 · 6393 · 5280 이메일 : weeklynews@kcue.or.kr 홈페이지 : www.kcue.or.kr

## 대교협 주간 주요 활동

## ● 2010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10. 6. 23일(수)부터 6. 24일(목)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0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화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대학의 초일류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주제의 기조 강연(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대학운영 선진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

제로 대학 선진 경영 사례 발표(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가 있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대학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7개 특별위원회 분과세미나에서는 언론사의 대학 평가 문제 등 특위 당면과제 중심의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는 더욱 다듬어진 정책으로 성안될 예정이다.

## ● 제7대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대교협은 2010. 6. 21일(월) 프레지던트호텔 18층 회의실에서 제7대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학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과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위원장), 강우정 총장(한국성서대), 강희성 총장(호원대), 이영선 총장(한림대), 이천수 총장(대진대), 임승안 총장(나사렛대) 등 위원 6명과 대교협 관계자 3명이 참석하였다.

## 회원대학 소식

### ●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지난 24일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까지 7박 8일 동안 필리핀 알바이(Albay)주 리가오(Ligao)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동국참사람 봉사단의 필리핀 해외봉사활동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30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은 필리핀 리가오시에서 야학당 짓기, 담장 보수, 배수로 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한국음식 나누기 등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문화교류활동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필자봉(필리핀자원봉사자) 4기 학생들은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면접영어 및 영어회화 수업으로 영어연수까지 함께 하는 일석이조의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발대식에서 “봉사는 나눔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므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마음으로 우리 학교와 한국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경일 동국참사람봉사단장은 “리가오시는 동국대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동국대학교 거리’를 조성해 준 지역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로 좋은 인연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국제 경쟁력과 자아개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필리핀 리가오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몽골 아르와이헤르, 인도 다람살라 등지에서 해외 의료 및 문화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 동명대학교

동명대학교(총장 이무근)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대학본부경영관 307호에서 학생 동문 교수 직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교적 사회봉사단 발족식을 갖고, 오전 11시30분부터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총장 등이 직접 참가하는 첫 급식봉사 활동에 나선다.

사회봉사 관련규정 제정을 최근 마무리한 동명대학교는 전 구성원의 대부분이 매월 연간 소액 기부 및 주기적 급식 봉사 등에 참여키로 했다. 급여 중 소액씩을 매월 기부키로 한 교직원은 총 264명에 이르며, 급식 봉사에는 총 114명이 참여키로 한 상태다.

이관이 동명문화연구원장은 “생전 청소년을 위한 BBS운동, 팔각회운동 등을 적극 이끌었던 학교 설립자 故 동명 강석진 선생의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회봉사단을 이번에 공식 구성하게 돼 가슴 벅차다”면서 “다양한 사회봉사 체험을 통하여, 동명대학교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지식인 양성을 넘어 다음세대를 견인할 ‘진정한 지성인’ 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명대학교 운영 남구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보육시설 등으로 봉사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한밭대학교



설동호(薛東浩) 한밭대학교 총장은 2010. 6.29(화) 일본 등 9개국이 참가하여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북아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 교과부, 학위논문 대필 근절 나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6월 29일 대학의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근절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 이번 방안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대필광고를 위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간 학위논문 대필행위는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염

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한 것이다.

- 대학은 연구윤리 확립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 대학은 ‘학문의 보루’로 특히, 연구윤리 의식에 바탕을 두고 지식의 발견과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때문에, 논문 작성 학생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도교수는 철저한 논문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 특히, 학생의 논문대필 등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 등 관련자를 제재(징계,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였다.
  - 아울러, 보다 질 높은 학위논문 생산을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였다.
- 정부는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
  - 정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학별 차등을 두어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 ※ BK21사업의 평가지표에 연구윤리관련지침 마련시 1점 가점 부여(‘10년부터)
  -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 아울러, 논문 대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 ①논문 등 저작물을 본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 신설(금년 중 개정완료 추진, 문화부 협조) ②현재 열람만 가능한 대학별 학위논문 등의 효율적 연계·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추진 중(하반기)
  - 또한,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을 포함하는 한편,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 연구윤리 교육 강화에 정부와 대학이 공동노력 하기로
  - 정부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교사 및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정보(www.grp.or.kr)를 지속적으로 확충 제공할 것이며,
  -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위과정 신입생 등에 대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 모든 연구개발사업 주체들의 올바른 연구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이의 인식확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역량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6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다.
-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대학의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분야)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30일 신청공고 후, 금년 하반기부터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 되면,
  -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의 지정 여

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대학 평가·인증제가 정착되면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로 이어짐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대학정보공시, '10년 예산 및 '09년 입학전형료 공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 김태완)은 2010년 6월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예산 및 입학전형료 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히고,
  - 4년제 일반대학의 2010년도 예산 및 2009년도 입학전형료 현황 등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공시 자료 중 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 및 사립대학의 예산현황은 대학정보공시의 항목관리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대학알리미에 연계 후 각 대학이 최종 확인한 것이다.
- 2010년도 대학 예산 현황
  - 4년제 일반대학 175\*개교의 '10년 학교당 평균 예산\*\*은 1,571억원으로 전년(1,417억원) 대비 10.9%가 증가하였으며,
    - 회계별로 살펴보면, '10년 예산의 증가요인은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각각 32.0%, 23.1%)의 높은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10년도 연간 등록금은 '09년 대비 평균 1.29% 인상('10. 4월 보도자료 참조)
  - '10년도 대학의 예산을 설립유형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2,454억원으로 전년(2,253억원)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사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1,417억원으로 전년(1,279억원) 대비 10.8% 증가하였다.

- 소재지별로 수도권 소재 국·공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3,963억원으로 비수도권 대학(2,179억원)에 비해 약 1.82배 높았으며,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예산은 2,035억원으로 비수도권 소재 대학(965억원)에 비해 약 2.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 9. 2.(목)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평가원이 감수한 EBS 수능교재에서 60%를 연계하여 출제하며, 평가원에서 감수한 EBS 연계 교재 목록을 함께 발표하였다.
-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며, 모든 영역은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이번 모의평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10. 8. 2.(월)에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접수 기간은 2010. 7. 5.(월) ~ 2010. 7. 15.(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10. 9. 29.(수)까지 시험에 응시한 곳으로 통보된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http://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http://www.ebsi.c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 ●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발표

- 대학에 학제 선택의 자율권 부여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의학교육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은 교과부가 '03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문) 제도 도입시, '09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10

년에 의사양성학제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예고한 바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 교과부에서는 '09.6월 의학계·이공계·시민단체 등 총 17인이 참여하는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10.4월까지 10개월 동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 위원회에서 건의한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기반으로 대학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은 의사양성학제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대학 자율로 학제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현재 한 대학 내에서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앞으로 두 학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게 된다.

- 또한, 의·치전원 체제에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의·치과대학에서 의·치전원으로의 전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만,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입학기회 형평성 보장과 의사수급문제를 고려하여 실제 학제 전환은 경과기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병행대학의 경우 대학 1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14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15학년도부터 학제 전환이 가능하고, 의·치전원은 고등학교 2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16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17학년도부터 학제전환이 허용된다.

- 이에 따라 의·치과대학으로의 학제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병행대학이나 의·치전원이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의·치과대학 총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 ※ 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학사편입학 비율 30% 유지, 이후 대학 자율 결정

- 한편, 교과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결원 보충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정착 재정 지원('10, 40억원)

- ※ 의과학자(M.D.-Ph.D)육성 지원('10, 30억원)

- ※ 국립대 교수 정원 증원 등

- 이번 제도개선 계획은 의·치의학 교육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그간 한 대학 내에서 의대·의전원(치대·치전원)을 같이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의대·의전원(치대·치전원)간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지 않고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수여학위와 등록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학생 선발과 관리, 학사운영 등에서는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또한, 의·치전원 제도가 다양한 학문배경과 사회경험을 가진 의사양성, 학생의 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교육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교과부에서는 의사양성학을 획일화하기 보다 대학이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 중에서 학제를 자율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이번 개선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자체적인 교육·연구 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정도를 감안하여 교과부에 대학별로 학제선택과 전환시기를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병행대학은 8월 20일, 완전전환대학은 10월 22일)하고, 교과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10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7월 2일(금) 학생들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책자도 접수 기관별로 동시에 배포된다.
- 201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668,213명으로, 재학생은 585,270명, 졸업생은 82,943명이었다.
  - 영역별로는 언어 영역 666,936명, 수리 영역 '가'형 171,860명, '나'형 479,159명, 외국어(영어) 영역 666,038명, 사회탐구 영역 365,460명, 과학탐구 영역 216,206명, 직업탐구 영역 80,53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43,271명이 응시하였다.
  -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각각 80.2%, 81.2%이며, 직업탐구 영역은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3.8%였다.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하였으며, 1개 과목만을 선택한 수험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였다.
  - 수리 영역 '가'형, 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하였다.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 수리 영역 '가'형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간 점수를 조정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 201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언어 영역과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각각 127점과 136점으로 나타났다.
  - 수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가'형의 경우 137점, '나'형의 경우 141점으로 나타났다.
  - 사회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5점~70점으로 나타났다.
  - 과학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9점~72점으로 나타났다.
  - 직업탐구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6점~75점으로 나타났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2점~77점으로 나타났다(독일어 I의 경우는 1등급과 3등급의 구분 점수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 출제에서  
영역/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하고자 한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mailto: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Member Universities News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